

말씀요약

LORD'S DAY
Message

마가복음 12:35 공평, 공정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대화를 마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외식에 대해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혹시 여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35,36)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 주”라고 했는데 그 메시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메시야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와 있는 인간이 아니라, 다윗 이전뿐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주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골로새서 1:15-16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기록합니다.

2. 서기관들의 외식(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외식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시작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 자리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자들 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과부가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41절부터 44절까지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길게 설명합니다.

41절부터 ‘과부의 두렘돈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부라고 하면 당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표징입니다. 생업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 갑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가 늘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을 없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들의 가산을 빼앗은다고 말씀 합니다. 당시 예배당에 들어가면 헌금을 하는 향아리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입은 작고 몸은 볼록하게 튀어 나왔으며 높이는 1미터 정도 됩니다. 그 앞을 지나면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두 동전을 향아리에 던져 넣을 때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헌금 했는지를 모두가 듣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동전을 던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 같은 기득권층은 헌금도 요란하게 합니다. 이것을 뒤에 헌금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과부가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렘돈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나 다임 정도의 작은 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녀의 전 재산입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짝습니다. 44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런 여인의 돈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한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몇일을 굶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은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공평은 무엇이고 공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9:19)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